

학령기아동의 음악적 성향과 유머감각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심인옥¹, 황은정^{2*}

¹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²한라대학교 간호학과

Impact of Resilience in school-age children related to sense of music and humor

In Ok Sim¹, Eun Jeong Hwang^{2*}

¹Chung-Ang University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²Cheju Halla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적 성향과 유머에 대한 감각 수준 파악 및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고학년 아동인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265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음악적 성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출생순위가 빠를수록 자아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적 성향,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은 학령기 아동에게서 고도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적 성향을 신장시키고 유머활동을 통해 유머 감각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기초적 이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sense of humor and music on the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 were 265 children who were 4th to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who lived in Seoul, Gyeonggi - do and Gangwon - do. The subject reported their sense of humor, sense of music and resilience on three separat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ANOVA and Kruskal-Wallis test. The results showed an increase in resilience related to the higher income status, young aged mothers and birth order.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a sense of humor and music and resili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source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pplying sense of humor and music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Elementary School Student, Humor sense, Music sense. Resilience

1. 서론

학령기 아동의 시기는 학령전기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에서부터 구체적 조작기의 단계를 거쳐 각 변인들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성과 가설적 추론과 함께 형식적 조작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된다. 이러한 결과는

*Corresponding Author : Eun Jeong Hwang(Cheju Halla University)

Tel: +82-64-741-7686 email: eejhjh@naver.com

Received December 3, 2014

Revised January 6, 2015

Accepted January 8, 2015

학령기 이전의 단순하고 실제적인 사실적 상황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인 자극을 경험하게 되며 구체적이고 설명력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하며 균형적이고 전체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게 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험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게 되어 학령기 아동기에 이루어야 할 건강하고 통합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있어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학령기 아동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중요한 구성은 가족 및 학교환경, 친구관계에서이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자기 존중감 및 자신감 및 긍정적 사고 등을 형성하게 되며, 학교환경 및 친구관계를 통해서도 사회성, 학업성취감, 친밀한 유대관계, 지식적 자신감, 및 창의적 사고력이 강화되어 긍정적인 성격유형으로 성장시켜 준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때는 사회적, 심리적인 성장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도록 한다[1].

더욱이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후반기에는 사춘기가 도래되면서 급격한 신체발달로 인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 신체의 비율은 거의 성인과 비슷하게 되고, 언어적인 발달도 어휘수의 끊임없는 증가와 지적흥미 범위의 비약적인 확대, 논리적 추리와 분석적 기술이 증가되며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타인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발달 과정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신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 사회적으로는 학교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형성 등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상황에서도 긍정적 사고와 대처능력을 가진 아동은 직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물의 특성을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게 된다. 이와 반대로 극복력이 없는 아동은 문제의 상황 앞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다른 반복적이고 복잡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2-5].

이와같이 학령기 아동에게 긍정적 대처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성격,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르게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자아탄력성이나, 자기 존중감 및 자아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구축이 되어 있

다면 성장과정에서 성공적인 대처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몇 가지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6], 자아탄력성을 활용하여 학교 생활과 또래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고 자기 계발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자아탄력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나 학교교육 방법 및 가정에서 특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관심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7].

자아탄력성은 긍정적 사고를 키워줄 수 있고 사회성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있거나 이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학령기 아동에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개념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에게 사회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중의 하나는 유머감각이다. 유머감각은 인지적, 창의적, 예술적인 감각을 생산하여 발휘 할 수 있도록 돕고, 학령기 아동이 학업성취를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적용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유머는 아동에게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웃음과 즐거움을 갖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문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유머감각이 있는 아동은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불안과 긴장감, 위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켜 행동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다[8-9]. 또한 유머의 효과는 자신의 위기와 문제에 대해 고도의 방어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9, 10]. 특히 학령기 아동은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유머 감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머를 활용한 교육방법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11-12]. 그러므로 아동에게 잠재적인 유머감각을 강화시켜 주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사회성을 강화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아 탄력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다양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11].

다음으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적 성향을 높여 주는 것이다. 음악적 감각이 있거나 음악적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즐거움, 유쾌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고통과 슬픔 등을 승화

시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서적인 면에 큰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동반하여 만족감을 증가시켜주고 정서를 변화시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성이 있거나 음악적 활동의 기회가 있는 아동들은 그들의 음악활동을 통해 그룹 내에서 참여를 격려하고 타인과의 교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외부세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흥미를 가지게 하며, 성공적인 활동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만족감을 얻도록 한다. 또한 비경쟁적 성취를 허용함으로 안정된 상황 속에서 타인을 관대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며,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상을 갖도록 한다. 더욱이 음악적 활동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행동과 자신감을 증대시켜 자기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음악활동을 통한 보상적인 결과는 멋진 연주, 작품활동을 통해 얻은 감정은 곧 긍정적인 사고와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3-4].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 및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음악성취도와 유머감각과의 효과와 자아탄력성과의 상호적 관련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이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유머감각과 음악성을 파악하고, 아동들의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며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머감각과 음악성 개발시키고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해 추후 탁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학령기 아동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학령기 아동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셋째, 학령기 아동의 유머감각과 음악성에 대한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2. 본 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다면적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머감각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고학년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부모 동의 및 참여를 수락한 자를 선정하였다. 대상 인원은 G power program 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유의수준 $\alpha=.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로 .15, 검정력은 95%, 예측변수를 10개로 감안하였다 [13].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172명이 필요하였으나 최초 대상자는 중도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300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코딩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265명의 대상을 최종으로 선정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유머감각(MSHS),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에 해당되는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도구는 신뢰성과 타당도가 증명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3.1 유머감각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Thorson과 Powell(1993)의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를 이재선과 조아미(2005)가 번역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14,15]. 본 도구는 유머감각에 대한 상황, 유머에 대한 자아탄력성 및 유머 활용방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척도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로 측정항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유머감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 0.9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88이었다.

2.3.2 음악성

음악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선희 외(2002)등의 다수 논

문에서 사용된 도구를 조미화(2005)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16,17]. 본 도구는 음악성에 대해 개인의 흥미도 및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어 음악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선정하였다.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까지이며 이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0.82, 본 연구에서 음악성의 도구 신뢰도는 0.97로 파악되었다.

2.3.3 자아탄력성

극복력은 통제하기 어려운 역경에서 고통을 견디어내는 힘이며,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적응을 증진시키는 인간의 잠재적인 심리사회적 능력이라고 정의한다[18]. 본 연구에서는 김동희(2002)가 개발한 만성질환 아동의 극복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점수를 말한다[19]. 극복력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는 긍정적 자기이해, 자신감, 자원 동원성, 자립성, 긍정적 가족 관계, 친밀성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0.92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0.95이었다.

2.4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방법으로는 처음으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학령기 아동에게 동의를 받아 설문지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0일 ~ 2014년 6월 30일까지 조사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버전 통계프로그램 활용하여 처리 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머감각, 음악성, 자아탄력성은 기술통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t-test, ANOVA와 Kruskal-Wallis 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학령기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Table 1과 같이 나타냈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205명(77.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7명(10.2%), 50대가 31명(11.7%)으로 전체 평균 44.16세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도 아버지와 같이 40대가 178(67.2%)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79명(29.8),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36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11세~12세가 각각 90명(30.0%), 92명으로(34.7%)로 가장 많았고, 10세는 41명(15.5%), 13세가 35명(13.2)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남자는 123명(46.4%), 여아는 142명(53.6%)으로 아동의 전체 연령은 11.46세 이었다. 부모의 경제수준은 300~400만원 미만인 90명(34.0%)으로 가장 많이 파악되었고, 200~300만원 미만이 77명(29.1%), 100~200만원 미만인 48명(18.1%), 400만원 이상의 수입이 50명(18.9%)으로 파악되었다. 형제수는 아동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이 97명(36.7%), 형제수가 본인 포함해서 2명은 130명(4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맏이인 경우가 153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업성취에서는 중위권 아동(성적 30%~60% 해당)이 162명(6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권(성적 30%이상)이 86명(32.5%), 하위권(성적 60%이하)이 17(6.4%)로 응답하였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악적 성향과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의 차이

유머감각, 음악성, 자아탄력성과 아동의 일반적 특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Table 2]. 조사 결과 아동의 어머니 연령에서 자아탄력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30대인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았다($p<0.05$). 아동의 성별에 있어 음악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경제수준에 따라 음악성, 극복과정의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경제수준이 40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음악성이 가장 높았고, 200백만원 대에서는 음악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복과정의 능력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y	N	%	M	SD
Father's Age	20s	1	0.4	44.16	4.507
	30s	27	10.2		
	40s	205	77.4		
	50s	31	11.7		
	60s	1	0.4		
	total	265	100.0		
Mother's Age	20s	1	.4	41.36	3.834
	30s	79	29.8		
	40s	178	67.2		
	50s	7	2.6		
	total	265	100.0		
Year	9	4	1.5	11.46	0.992
	10	41	15.5		
	11	90	34.0		
	12	92	34.7		
	13	35	13.2		
	14	3	1.1		
	total	265	100.0		
Gender	male	123	46.4		
	female	142	53.6		
	total	265	100.0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 200	48	18.1		
	200~299	77	29.1		
	300~399	90	34.0		
	≥400	50	18.9		
	total	265	100.0		
Number of Brother	1	97	36.7		
	2	130	49.1		
	3	31	11.7		
	4	6	2.3		
	5	1	.4		
	total	265	100.0		
Birth Order	1	153	57.7		
	2	91	34.3		
	3	16	6.0		
	4	5	1.9		
	total	265	100.0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86	32.5		
	Middle level	162	61.1		
	Low level	17	6.4		
	total	265	100.0		

[Table 2] Comparison of Resilience by Characteristics with The Humor and Music Sense

Variables	Category	Humor sense		Music sense		Resilience	
		M	SD	M	SD	M	SD
Father's Age	20s	98.00	0.00	72.00	0.00	137.00	0.00
	30s	73.93	12.60	110.93	26.85	135.41	14.06
	40s	73.47	13.14	117.06	26.27	133.91	19.52
	50s	71.19	11.06	112.61	25.25	131.23	19.44
	60s	96.00	0.00	83.00	0.00	140.00	0.00
	X ² (p)	7.127(0.129)		6.538(0.162)		0.726(0.948)	
Mother's Age	20s	98.00	0.00	72.00	0.00	137.00	0.00
	30s	73.19	13.63	116.16	27.22	134.29	18.74
	40s	73.74	12.55	115.63	25.97	134.33	18.73
	50s	64.57	11.41	115.43	25.32	113.71	18.79
	X ² (p)	5.502(0.139)		2.511(0.473)		6.608(0.086)	
	Year	9	75.25	13.40	119.25	22.79	137.25
10		71.07	13.02	110.88	24.57	127.76	21.95
11		74.07	12.74	113.70	26.14	135.19	17.14
12		73.57	13.76	117.62	26.07	133.54	19.76
13		73.94	11.20	117.94	29.79	137.20	17.42
14		73.67	19.76	144.67	3.51	137.00	16.37
X ² (p)		1.828(0.872)		8.204(0.145)		4.259(0.513)	
Gender	male	72.95	13.70	107.40	29.00	131.87	19.49
	female	73.84	12.31	122.74	21.44	135.44	18.32
	t(p)	-0.551(0.582)		-4.937(0.001)		-1.531(0.127)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less than 200	70.15	12.81	113.60	24.93	129.85	22.81
	200~299	73.23	13.57	109.68	29.04	130.56	18.51
	300~399	73.37	12.49	117.09	24.54	135.21	17.83
	400 or higher	76.98	12.43	124.06	24.48	139.96	15.70
	F(p)	2.321(0.076)		3.293(0.021)		3.478(0.017)	
Number of Brother	0	82.00	11.30	124.55	21.45	139.64	15.49
	1	72.45	12.27	115.12	24.65	134.47	17.87
	2	74.40	13.48	116.08	27.72	134.50	19.77
	3	69.16	12.18	112.39	23.55	127.77	19.05
	4	74.17	11.46	108.17	41.10	126.33	17.18
	5	64.00	0.00	145.00	0.00	149.00	0.00
X ² (p)	9.535(0.090)		4.046(0.543)		6.659(0.247)		
Birth Order	1	74.25	13.54	115.48	26.40	134.76	18.97
	2	73.09	11.61	116.48	25.55	134.40	18.10
	3	69.56	15.42	116.63	25.74	125.25	22.04
	4	67.50	6.40	97.00	47.74	119.00	15.30
	X ² (p)	2.756(0.431)		0.549(0.908)		5.888(0.117)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76.26	12.55	123.36	26.29	142.12	15.71
	Middle	72.65	13.01	112.52	25.56	130.78	18.72
	Low llevel	66.47	11.36	105.94	25.81	120.24	20.28
	X ² (p)	11.612(0.003)		14.892(0.001)		30.305(0.001)	

학업성취에 따라 유머감각($p<0.01$), 음악성($p<0.01$), 극복과정의 능력($p<0.001$)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 음악성, 극복과정의 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극복과정의 능력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음악적 성향,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반면에 학령기 아동의 유머감각($p<0.001$), 음악성($p<0.001$)과 자아탄력성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어머니 연령($p<0.05$)과 유익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3.4 음악적 성향과 유머감각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학령기아동의 자아탄력성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 하였다. 자아탄력성의 능력을 종속변수로 하고 유머감각, 음악성, 개인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5.168, p=0.000$), 설명력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머감각($\beta=0.304, p<0.001$), 음악성($\beta=0.337, p<0.001$), 학업성취($\beta=0.179,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 265명을 대상으로 각 아동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

[Table 3] Correlation Matrix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Resilience	Humor sense	Music sense	Father's Age	Mother's Age	Age	Number of Brother	Birth Order
Resilience	1							
Humor sense	0.494***	1						
Music sense	0.499***	0.410***	1					
Father's Age	-0.061	-0.063	0.014	1				
Mother's Age	-0.123*	-0.108	-0.016	0.718***	1			
Year	0.094	0.039	0.112	0.106	0.074	1		
Number of Brother	-0.101	-0.091	-0.044	0.004	-0.031	0.021	1	
Birth Order	-0.118	-0.099	-0.024	0.223***	0.298***	0.105	0.448***	1

* $p<0.05$, ** $p<0.01$, *** $p<0.001$

[Table 4] Impact of Resilience in Humor and Music Sense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B		
Constant	69.138	16.662		4.150	<.001
Humor Sense	0.444	0.080	.304	5.530	<.001
Music Sense	0.242	0.041	.337	5.883	<.001
Father's Age	0.050	0.297	.012	0.167	.867
Mother's Age	-0.284	0.364	-.058	-0.781	.436
Year	0.085	0.990	.004	0.086	.932
Gender	-1.356	1.990	-.036	-0.681	.496
Monthly Income (Ten thousand won)	1.195	0.975	.063	1.225	.222
Number of Brother	-0.877	1.293	-.038	-0.678	.499
Birth Order	-0.493	1.661	-.018	-0.297	.767
Academic Performance	5.971	1.807	.179	3.304	<.001

$R^2=0.372, F=15.168, p=0.000$

수간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 정도,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 간 상관관계 및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음악적 성향과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의 차이

학령기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정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각 개념과 관련하여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평균 연령 30대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어머니의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인식 변화와 함께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의 지지를 통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방법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미자(2005)의 연구에서도 초기에 부모가 사용한 육아방식에 따라 아동 발달의 기본 틀이 형성되고 그 이후에도 아동의 자아탄력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20].

다음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아동의 자아탄력성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곧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동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안정되고, 편리하고, 쾌적한 가정에서 불안감 없이 적극적인 사회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21]. 이에 본 연구 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과 양육을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자아탄력성 발달을 성공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가족 내의 환경 개발을 위해 부모 및 사회에서의 지지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제 수에 따라서는 형제 수가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아동의 형제

수가 5명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며 협동심이나 자율성을 통해 사교적이고 타인과 잘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과 함께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한 연구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성취 결과 및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학교 적응능력, 자기조절능력이 있고 자아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8].

출생 순위에서는 첫째 아동이 가장 자아탄력성이 있었고, 출생순위가 늦어질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시 부모의 관심이 첫째 아이에게 집중이 되며 적극적인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에 대한 결과로 보인다. 이제까지 출생순위를 통하여 알아본 국내 연구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음악성과의 연관성으로는 아동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성별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자 아동은 남자아동보다 음악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며, 음악적 감수성과 표현력, 음악적 사고력이 높으며, 여러 조건에서 여자 아동은 남자보다 음악을 접할 기회가 좀 더 많기에 이로 인한 음악적인 성향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는 여아들이 먼저 사춘기를 맞게 되고 남자 아동보다 성숙이 더 빨리 발달되어서 음악적 발표능력이나 음악활동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Siebenaler(2008)의 연구에서도 여자 아동들이 음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남자 아동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아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22].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유럽 학자들은 음악적 소질은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음악성은 선천적인 잠재력과 환경 모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23]. 이러한 차원에서 선천적 혹은 성별에 의해 나타나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적지지 및 아동의 음악적 사고력을 개발시켜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수준도 음악성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경

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좋은 가정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동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의미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으며 이는 음악적 활동하고도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지지는 아동의 음악적 재능을 위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근거를 통해 작고 크게 이루어지는 연주회 참석 및 스스로의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며 이어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져 결국 자아탄력성을 발달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 음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따른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아동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나 대처능력이 뛰어난 대상들이며, 지적능력, 긍정적 사고나 대처능력은 유머감각이나 음악성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9]. 또한 우소연과 박경자(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유머는 긍정적 사고를 강화시켜 아동의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24,25,26].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유머적 의식구조와 긍정성이 학업과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과의 영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머감각, 음악성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유머감각 및 음악성과 자아탄력성과의 연속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추후 가족환경 설정 및

학교교육의 방향이나 실무적인 중재를 위해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 연구(Bennett, 2003; Dowling, 2002; Kim, 2002; Rew & Horner, 2003; Sim, 2006; Yang, 2012)에서도 유머감각의 특성은 음악적 흥미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유머감각은 곧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아탄력성의 형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9,11,12,16,19]. 유머감각이 있다는 것은 아동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갖도록 하며 아동이 스스로 삶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동시에 스스로 자아탄력성 있는 생각과 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19,21].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유머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고취시켜 직면한 과업을 용이하게 해결하도록 도우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아동의 음악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음악 감상이나 연주 활동의 기회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내적인 안정감을 심어주어 정서적인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킨다[27]. 학령기 아동 중 특히 고학년 학생들은 소위 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음악 활동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Kim(2010)의 연구에서도 음악적 수준이 높은 아동은 높은 감수성과 직감력 인내력, 리더쉽, 독립적인 자율성 및 자아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23]. 이와 같이 음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고 음악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전체 삶의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있는 인격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한다[4,31,32].

유머감각을 통한 행동의 확장과 음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사회적 관계 및 목표 성취 등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조정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 있는 사고와 행동양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각각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에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교육의 과정, 교육환경 및 학교 보건 실무에서도 건강증진 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3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음악성, 유머 감각, 학업성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즉 음악성과 유머 감각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자아탄력성이 높아 학교생활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로 음악성과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성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자아탄력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더 자아탄력성이 좋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아동에게 방과 후 학교 음악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습부진아동들의 사회성발달과 자아 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33]. 그리고 Hwang & Kim(2010)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음악성도 연령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며, 음악활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성과 정서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23]. 따라서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한 학령기 아동의 음악성이 신장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아탄력성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유머감각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유머감각은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면서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도록 하여 자아탄력성을 얻도록 하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24]. Sim(2006)의 연구에서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유머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친구관계형성이 강화되면서 자아탄력성 있는 행동을 나타내었던 결과는 즉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좋은 유머감각이 바탕이 된 자아탄력성은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는 물론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9]. 또한 유머 감각은 교사 관계 및 교우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유능한 능력이 있고, 특히 외향적, 협동적이고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지적 그리고 안정적인 정서를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다[24]. 이러한 유머감각의 후광효과는 아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아탄력성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의과정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초등학교 내의 교육방법에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유머 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일상생활에서도 유머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이 파악이 되었다. 학업성취능력은 학교 및 일상생활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학교 내 많은 과업에서 긍정적 사고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자기 스스로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자기의 통제 능력과 함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성취감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성과 유머 감각 및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머감각과 음악성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며 음악성이 높을수록 활동적인 면에서의 자아탄력성 있는 사고와 행동양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유머감각과 음악성은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대안과 관심이 학령기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음악성 성향, 유머 감각 및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음악성 성향, 유머 감각과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그리고 음악성 성향, 유머 감각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265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고 이에 대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젊을수록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성별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은 음악성과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아탄력성에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에 따라 형제가 5명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위에서는 첫째가 가장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출생순위가 늦어질수록 자아탄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성취에서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음악성,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아탄력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령기 아동의 음악적 성향, 유머 감각이 자아탄력성에서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음악성 성향, 유머 감각이 학령기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본 연구 분석 결과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음악성 성향, 유머 감각 및 개인의 일반적 특성 중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의 음악적 성향 및 유머 감각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합적인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연구로 본 연구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세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무한적인 경쟁과 주변 기대치의 상승으로 인해 수많은 과업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학령기 후기의 아동들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인 자아 개념의 발달이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다. 이 시기의 자아탄력성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성공적으로 발달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학령기 아동은 자아탄력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사회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령기 아동들에게 자아탄력성은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유머와 음악성은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의 한

계점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의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아탄력성에 따른 상관관계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몇 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적 개념을 포함한 항목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더 나아가 사회의 환경에서 유머감각을 강화시켜줄 수 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언어표현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음악성 개발을 위해 음악과목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 및 음악적 흥미와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령기 아동들이 가장 중요한 학업 성취, 사회적 발달 및 올바른 인격형성의 기반이 되는 자아탄력성 있는 사고로 인생의 한 발달과정을 직면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 긍정적 사회적 적응 및 창의성 향상과 융통성 있는 사고를 길러 한 아동을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동의 유머감각이나 음악성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학교교육의 변화와 사회적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M. Y. Kim, A study of stress, coping behaviors and health problems in school age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1(1), p.83-89, 2005.
- [2] K. H. Kim, *Children's participation in ski clubs on confidence, Problem solving skills, and living manne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3] J. S Kim, *Effects of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with under achievement on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Jeon Buk, Korea, 2012.
- [4] G. H. You, *Impact of participation in challenging activities on confidence and intrinsic motivation amo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2010.

- [5] J. H. Song. Original Articles : Study on Clinical Education for Nursing in Hospital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2), p251-264,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251>
- [6] Asher, S. R, Parker, J. G., & Walker, D. L. Distinguishing friendship from acceptanc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assess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 366 - 405, New York: Cambridge, 1996.
- [7] Y. J. Koh, & Y. S. Kim & J. S. Noh. Contribution of behavioral disturbanc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to the self-perceived social competence in korean elementary -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2), 65-78, 2000.
- [8] M. S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between the only child and sibling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ah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6.
- [9] I. O. Sim, & K. J Han. A study of humor as a nursing intervention for hospitalizatio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1), p.114-121, 2006.
- [10] Rew, L., & Horner, S. D. Youth resilience framework for reducing health-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8(6), p.378-388,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882-5963\(03\)00162-3](http://dx.doi.org/10.1016/S0882-5963(03)00162-3)
- [11] Bennett, H. J. Humor in medicine, *The Southern Medical Journal*, 96, p.1257-1261, 2003.
DOI: <http://dx.doi.org/10.1097/01.SMJ.0000066657.70073.14>
- [12] Dowling, J. S. Humor: A coping strategy for pediatric patients. *Pediatric Nursing*, 28(2), p.123-130, 2002.
- [13] Faul, Erdfelder, Lang, & 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p.175-191, 2007.
DOI: <http://dx.doi.org/10.3758/BF03193146>
- [14] James A. Thorson & F. C. Powell, *Sense Of Humor And Dimension Of Personality*. university of Nebraska at Omaha, 1993.
- [15] J. S. Lee,& A. M.Cho. The effects of youth's humor sense and style on stress countermeasure and heal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p.79-100, 2005.
- [16] S. H. Yang,. *The influence of music play upon musical attitude in the singing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2002.
- [17] M. H. Cho, *The effects of music instructional program distraction and musical interests of the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05.
- [18] Fine, S..B. Resilience and human adaptability: Who rises above adversity? *Americal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45(6), p.493-503, 1991.
DOI: <http://dx.doi.org/10.5014/ajot.45.6.493>
- [19] D. H. Kim,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resilience in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2.
- [20] M. J. Choi.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School Life Adjustment and Creative Disposi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tudies*, 12(2), p.223-243, 2005.
- [21] Y. J. Koh, &Y. S. Kim & J. S. Noh. Contribution of behavioral disturbance,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to the self-perceived social competence in korean elementary - 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3(2), p.65-78. 2000.
- [22] Siebenaler, D. J. Children's attitudes toward singing and song recordings related to gender, ethnicity, and age.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1), p.49-56. 2008.
DOI: <http://dx.doi.org/10.1177/8755123308322275>
- [23] I. J. Hwang,& E. J .Kim, The effects of playfulness on musical character and attitud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4(5), p.55-78, 2010.
- [24] S. Y .Woo, & K. J. Park.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p.113-127, 2009.
- [25] Kuiper, et al.. Humor is not always the best medicine : Specific components of sense of humo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umor*, 17(1), p.135-168, 2004.
- [26] Silva, R. L. Humor and music to reduce the stress and pain related to invasive diagnostic and therapeutical procedures in patients with hematological malignancies. *Ann Hematol*, 91, p.133-134, 2012.
DOI: <http://dx.doi.org/10.1007/s00277-011-1221-4>
- [27] E, J. Lim(2005). *The effects of group music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steem, confidence, socialization*. DaeJeon Univers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Korea.
- [28] L. Rew,& S. D Horner. Youth resilience framework for reducing health-risk behaviors in adolescent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8(6), p.378-388, 2008.
DOI: [http://dx.doi.org/10.1016/S0882-5963\(03\)00162-3](http://dx.doi.org/10.1016/S0882-5963(03)00162-3)

- [29] S. Y. Yang. A study on the phased inclusive activity approach for the 3rd and 4th grades in elementary schools for the improvement of basic Musicalit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2), p.199-225, 2012.
- [30] H. J. Kim, *The effect of constructivist teaching - learning to the change of music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san, Korea, 2000.
- [31] J. S Kim, *Effects of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for children with under achievement on self-confid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Jeon Buk, Korea, 2012.
- [32] G. S. Shin, *A Study on the effects of appreciation activities focused on musical concepts on music understanding and musical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2001.
- [33] G. K.Yun. The effects of a movement-based after-school music program on music underachievers' musical achievement, social development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3), p.183-212, 2013.

황 은 정(Eun-Jeong Hwang)

[정회원]



• 2013년 9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지역사회, 공공의료

심 인 옥(In-Ok Sim)

[정회원]



• 201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관심분야>
아동간호, 유머증제, 음악감각